

교실 내 공기청정기 전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

담임교사	원장
이미선	박인숙

대상연령	만 0,1,2 세	참 가 자	전체 교사 / 전체 영아
활동일자	2026년 04월 15일	활동시간	11:00~11:30
영역	소방대피훈련		
교사의 기대	• 누전이 무엇인지 듣고 위험성을 안다. •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.		
활동자료	우리 반 비상대피도, 젖은 손수건, 수건, 화장지, 물		
활동방법	<도입> ① 불시에 화재 사이렌(비상벨)을 울린다. <전개> ① 교사는 화재 상황을 알린다. ② 영유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대피 요령에 맞추어 안전하게 대피한다. ③ 대피장소로 집결하여 영유아의 인원을 점검한다. ④ 대피 시의 주의 사항을 안내하며 이야기 나눈다. - 어디에서 불이 났나요? - 교실에서 불이 났어요. -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피했나요? 순서대로 말해볼까요? - 사이렌 소리가 울렸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? - 대피할 때는 누구를 따라 대피해야 할까요? - 불이 나면 검은색 연기가 많이 난대요. 이 연기를 마시면 우리 몸이 어지럽고 아플 수 있어요. - 연기를 마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- 젖은 수건이나 손수건 또는 자기 옷으로 입과 코를 가려요.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허리를 숙여 몸을 낮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. - 빨리 대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- 놀잇감이나 내 물건은 그대로 놓고, 부지런히 선생님을 따라 대피해야 해요. ⑤ 오늘 불이 난 상황에 대해 알아보며 소방대피훈련을 회상해 이야기 나눈다. - 오늘은 어디에 불이 났을까요? 교실에 있는 공기청정기에서 불이 났어요. - 왜 불이 났을까요? 공기청정기 전선 안에 흐르던 전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불이 났어요. - 불이 나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날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? - 젖은 수건이나 손수건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가리고 안전한 곳으로 선생님과 함께 대피해야 해요.		
평 가	사이렌이 울리자, 놀이를 멈추고 대피 요령에 따라 대피 장소로 이동함. 지난달보다 익숙해지며 시간을 조금 단축한 모습임. 전기 누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 상황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눔.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.		

활동사진



활동사진

